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汽笛)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벼개 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끈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여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나)

좁고 쓸쓸함이 몽당뿔자루 같은 날
운암댐 소릿길에 서서
날개소리 가득히 내리는 **청둥오리떼** 본다
혼자 보기는 아슴찬히 미안하여
그리운 그리운 이 그리며 본다
우리가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내가 침 뺄고 오줌 내갈긴 [A]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머언 먼 순은의 눈나라에서나 배웠음직한 **몸짓**이랑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별, 별, 새, 새, 들, 을, 본다
물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이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며
비상을 위해 뼈 속까지 비워둔 **고행**과
한 점 기쁨마저 짓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는데
물가의 진창에도 푹푹 빠지는 [B]
아,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그리운 이여,
네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
마나 얇은 것이냐
한 무리의 새떼는 또
초승달에 결승문자 몇 개 그리며 가뭇없는
더 먼 길 떠난다 이 밤사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C]
저 운암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

43.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과 점층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시구의 변주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44. <보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인 김광균은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당대의 시단에 회의감을 느끼고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때 그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중국 작가 ‘노신’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시인의 이러한 의식은 그가 쓴 「노신의 문학 입장」이라는 다음의 글에 나타나 있으며, 그의 시 「노신」에 잘 반영되어 있다.

“.....혁명의 혼탁과 동란의 전진에 싸여 작품과 인간이 격양하고 충렬되었을 때 홀로 정밀한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나는 내대로 생각하고 있다.....”

- ① ‘사내’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시인이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③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시인이 힘들게 살았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은 힘든 상황에서도 문학적 의지를 잃지 않았던 고독한 ‘노신’을 시인이 떠올린 것이겠군.
- 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는 시인이 ‘노신’의 삶의 태도를 내면화하여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45.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가 ‘청둥오리떼’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는 ‘살얼음’과 같은 현실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새떼들이 ‘고행’을 하는 것이 ‘바다와 눈보라’를 헤쳐 나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무거운’ 삶을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고 ‘속된’ 집착을 자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⑤ [C]에서 화자는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며 자신도 새들처럼 ‘가난해져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1) 2017년 3월 시행, 201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43-45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²⁾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
 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 심의: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나)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짙레로 서 있고 싶다. [A]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짙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C]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C]

아픔이 출렁거리
 늘 말을 잃어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D]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D]

- 문정희, 「짙레」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32.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33.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2) 2017년 4월 시행, 2017학년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31-33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뿜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꿈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머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서이다

-조지훈, 「고풍 의상」-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기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B]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여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부연(附椽):긴 서까래 끝에 덧엮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호장:회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깔 있는 형식으로 꾸민 것.
 *초마:‘치마’의 방언.

26.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7.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 2017년 6월 시행, 2018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26-29

28.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9.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결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통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 줌 뺏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덮드려 있’는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짹 짹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

(가)

벌목 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
 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즉도 하이
 다람쥐도 좃지 않고 뭇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
 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희보담 희고너!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웃질 중
 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좃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
 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바 —

- 정지용, 「장수산 1」 -

* 벌목 정정: ‘정정’은 커다란 나무를 벨 때 울리는 ‘찌르렁’ 소리를 한문자로 표현한 것임.

* 울연히: 홀로 우뚝하게.

(나)

- [A] 오늘, 북창(北窓)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쌓지만
 태고(太古)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 [B]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
- [C]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 [D] 그 품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峨峨)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 [E]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II」 -

(다)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이십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遞傳夫)*는
 이따금 ‘하도롱’ 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
 쳐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
 우제(祈雨祭)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
 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
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
어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 칠야(漆夜)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
 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
 도 같습니다.

㉡ 객줏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夕刊)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
릅니다. 정(鄭) 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슬하도
 록 ‘호까(연초갑지)’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베짖이가 한 마
 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둛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 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類)다른 기억에다
 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 슬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聲樂)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

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루 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詩情)을 기초합니다.

그저계신문을 찢어버린
때물은 흰나비
봉선화는 아름다운애인의귀처럼생기고
귀에보이는지난날의기사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리물-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石英質)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난계(寒暖計)* 같은 길을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그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 엮은 지붕에 별빛이 내려지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㉓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엮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조(才操)로 광음(光陰)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 안을 방채 시계를 만들어 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 기름 내음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줄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㉔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 이상, 「산촌 여정」 -

* MJB: 커피의 상표. * 체전부: 우편배달부. * 한난계: 온도계.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특정한 대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이 상징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명령형 문장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장수산 1」은 겨울 장수산의 지극히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 세상일에 초연한 옷걸 중의 모습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속과 단절된 무욕의 공간 속에서 번뇌하면서도 탈속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화자의 결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 ① 나무가 베어진다면 그 소리가 '쩌르렁' 하고 울릴 만큼 고요한 장수산에서 화자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군.
- ② 보름달이 뜬 '한밤'에 하얗게 눈 덮인 장수산은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③ 승부에서 모두 지고도 웃을 수 있는 '옷걸 중'의 초연한 모습은 세속과 절연된 장수산의 이미지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군.
- ④ 장수산의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내면은 갈등하고 있음을 '심히 흔들리우노니'라고 표현하고 있군.
- ⑤ '장수산 속 겨울 한밤'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빈버를 잊고 '울연히' 시름을 견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30. (나)의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사람'과 '산'의 상반된 속성을 대비하여 '복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앉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산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너그러'우며 '자랑'없고 '겸허한' 산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를 통해 산에 대하여 화자가 친화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배우네'를 통해 산이 화자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에서는 '이승'을 '낮'에, '저승'을 '밤'에 비유하여, 이승에서와 달리 저승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31. (나)의 산과 (다)의 도회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이상적 삶의 공간이다.
- ②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③ '산'은 화자에게 현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도회'는 '나'에게 미래의 삶을 계획하게 한다.
- ④ '산'은 화자에게 예찬의 대상이고, '도회'는 '나'에게 걱정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⑤ '산'은 화자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도회'는 '나'가 갖고 있는 생각을 견고하게 한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

— <보 기> —

「산촌 여정」에서 작가는 낯선 산촌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의 삶에 익숙한 작가는 산촌의 자연적이고 향토적인 사물을 도시인의 관점에서 형상화하거나,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언어를 통해 산촌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① ㉠ : 산촌에서 보는 짐승들을 ‘동물원’과 관련된 도시적 경험과 연결하며, 산촌에서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석유 등잔’의 ‘내음새’를 도시에서 접했던 ‘석간’ 신문의 냄새에 비유하며, 자신의 소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 ③ ㉢ : 베짖이 울음소리를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이발소가위 소리’에 비유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도시의 경험과 관련 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 : ‘가을’이 오는 것을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으로 표현하며, 추상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 꿈속에서 본 도회 소녀를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에 비유하며, 산촌에서 갖게 된 이국적인 삶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6)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나)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옥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려 나간다.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치노나.

쫄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턴 녹음, 수목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겨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궁겨워 : 궁금하여.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 한다.
- ③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견디게 향그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5) 2017년 7월 시행, 2017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8~32번

6) 2017년 9월 시행,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20~22번

[39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⁷⁾

(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폭폭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폭폭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폭폭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양응양 울을 것이다
 -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나)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대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굽이에 나, 꽃꽃 한 포기를 위해
 몸의 한편 내어 준 적 있었는가 피워 본 적 있었던가
 - 박남준, 「아름다운 관계」 -

3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는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하여, (나)는 동일한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40. (가), (나)의 시상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은 상상에서 현실로의 전환을, ㉡은 외적 고찰에서 내적 응시로 의 전환을 예고한다.
 ② ㉠은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은 애상적이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은 화자의 관조적인 태도를, ㉡은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유도한다.
 ④ ㉠은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을, ㉡은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이끌어낸다.
 ⑤ ㉠은 화자의 소망과 염원을, ㉡은 화자의 성찰과 반성을 함축한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무수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순수를 지향하며 단절과 고립을 자처하기도 하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질적인 존재들을 포용하며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도 한다. 이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세계를 대하는 저마다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각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탐지할 수 있다.

① (가)에서 '나'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는 것은 속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가)에서 '눈' 내리는 상황의 지속은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로부터 자처한 고립과 '나타샤'에 대한 '나'의 물입을 심화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③ (나)에서 '바위'는 '작은 풀씨'의 생명력을 원천으로 삼아, '강물 소리'와 새의 '노랫소리'를 매개로 '소나무'와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④ (나)에서 '불모'의 바위가 '품 안이 너른' 바위가 되고 '몸'을 틀어 '소나무'를 키워낸 것을 통해, 주체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변화할 때에 다른 존재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나)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바위'가 먼저 '솔씨'에게 '틈'을 내어 뿌리를 내리게 했듯이, 내가 먼저 '몸의 한편'을 내어 누군가를 품어 주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7) 2017년 10월 시행, 2017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9번~41번

[20~22]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⁸⁾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쨌.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한 가락 어디덴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 갔소.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조상 : 남의 죽음에 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墓碑銘)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건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A]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

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0. (가)와 (나)의 공통으로 가장 한 것은?

- ㉠ 청자를 명시로 설정하여 풍자으로 비하고 있다.
- ㉡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 시 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반어 어조를 활용하여 실에 한 비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 [A]의 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 ㉠ ㉠: 극한의 추를 드러내는 시간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 ㉡: 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 하게 될 공간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 실이 망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하여 드러내고 있다.
- ㉣ ㉣: 자연물에 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 실이 희망으로 바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 ㉤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 진 실에 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22.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 와 (나)의 묘비명 을 이해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은?

- ㉠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 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을 드러 내고 있겠군.
- ㉢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하고 있겠군.
- ㉣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
- ㉤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의 시조차 읽 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을 드러 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8) 2018학년도 수능 국어 현대시 20~22번


정 답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현대시(2017년 3월 시행)
43.③ 44.② 45.②
2017학년도 4월 학력평가 현대시(2017년 4월 시행)
31.④ 35.③ 36.⑤
2018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시(2017년 6월 시행)
26.① 27.② 28.③ 29.④
2017학년도 7월 학력평가 현대시(복합)(2017년 7월 시행)
28.① 29.② 30.④ 31.④ 32.⑤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시(2017년 9월 시행)
20.① 21.④ 22.③
2017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현대시(2017년 10월 시행)
39.③ 40.⑤ 41.③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현대시(2017년 11월 시행)
20.③ 21.④ 22.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